

근대 전환기 여성 번역가의 등장과 근대적 인식론의 성립*

-잡지 『우리의 가덤』에 연재된 영한 번역을 중심으로-

김민지**

〈차 례〉

1. 독자에서 기자로: 여성 번역가 백경애의 등장과 그 배경
2. 한국 번역의 역사와 여성(독자)의 지식 수용
3. 독자 참여로서의 '상황적 번역'과 '우리 조선 여자들'을 향한 사견(私見)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근대 전환기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근대적 지식을 전파하고자 하였던 잡지 『우리의 가덤』에 연재된 번역문을 조명함으로써 서구의 논의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우리의 가덤』에 나타난 '독자에서 필자로'의 이동 양상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지점이었다. 앞선 논의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자 출신 '기자'였던 백경애의 번역 작업에 주목하였다. 백경애는 『우리의 가덤』 8호에 두 편의 글을 발표하며, 기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하나는 '현상모집' 당선작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내한 선교사였던 미국인 저자 무야굽(제이굽 로버트 무스, J. Robert Moose)이 출간한 책의 일부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문이었다. 이 번역물은 『우리의 가덤』에 총 3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본 논문은 이때의 번역물이 전문(full text) 번역이 아니었으며, 매호 '역자 후기'와 같은 형태로 사견(私見)이 함께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백경애의 번역 작업이 서구의 시선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조선의 상황을 덧붙이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9099).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번역 방식을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 논의를 빌려 ‘상황적 번역’이라 명명하고, 당대 여성들에게 조선이라는 삶의 터전이 ‘전근대적 농촌/근대적 여학교’와 같은 이분법적 공간으로 간단히 규정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 여성들의 문해력 획득 및 글쓰기 역사와 관련하여 ‘영한 번역’의 사례를 검토하는 연구 방식은 식민지 역사 속 ‘근대화’ 문제를 다층적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번역가, 여성독자, 여성기자, 여성잡지, 무아굽(제이콥 로버트 무스)

1. 독자에서 기자로: 여성 번역가 배경에의 등장과 그 배경

1898년에 발표된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이하 ‘여권통문’)은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로 여겨진다. 이 선언문은 한국에서 여성들이 주도한 최초의 여성운동단체인 찬양회(贊襄會)가 반포한 것으로, 천부인권사상을 기반 삼아 여성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정치참여권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통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지식체계의 성립 과정과 연관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식민지로서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정치·교육·노동에 대한 여성의 권리 획득과 관련하여 ‘근대화’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함께 되짚어볼 점은 이 시기의 여성들이 근대적 독서 행위를 습득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1896년 창간한 『독립신문』이나, 1898년 창간한 『제국신문』에서는 신문독자들의 투고를 장려하였는데, 여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 능동적 독자로서 ‘훈련’될 수 있었다는 점이 기존 연구에서 의미 있게 검토된 바 있다.¹⁾ 또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기점으로 여성들이 공적 발언을 향한 의지를 강력히 불태우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06년 창간한 최초

1)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III) - 1898~1910년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159쪽.

의 여성잡지 『가댕잡지』와는 달리 1908년 창간된 여성잡지 『여자지남(女子指南)』과 『자선부인회잡지』에서 여성 필자들의 참여도가 확연히 증가하였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했다.²⁾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13년부터 발간된 잡지 『우리의 가댕』은 “1910년대 조선에서 발간된 유일한 여성잡지”³⁾이자, 여성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⁴⁾

『우리의 가댕』 제1호에 실린 『우리의 가댕을 발간하는 동기』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신문과 잡지를 많이 발간하여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었다. 해당 글은 특히 ‘한문을 아는 이가 많이 없다’는 상황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가댕』이 순국문으로 발행되었던 이유가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 잡지가 “보통 지식의 향유 대상을 남성들뿐만 아니라 유치하고 몽매한 여성들로 넓히는 여성지의 원형이자 가정잡지의 선구자” 역할을 한 잡지로 평가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⁵⁾

물론 『우리의 가댕』의 발행소가 신문사(新文社)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문사는 신문관(新文館)과 함께 1910년대 한국의 종합지 및 교양지 출판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았던 인쇄소 중 하나로,⁶⁾ 『우리의 가댕』 발행인 다케우치 로쿠노스케는 식민지에 ‘도구적 지식’을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던 인물이었다.⁷⁾ 이는 이 잡지에 내재된 친일적 성격을 드

2)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 과정 - 1908년 「대한매일신보」, 『여자지남』, 『자선부인회잡지』를 중심으로」, 『韓國古典研究』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07쪽.

3) 이혜진, 「일본인 발행 여성잡지와 ‘가정 개량’의 방향 - 『우리의 가댕』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5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174쪽.

4) 『우리의 가댕』은 창간 당시 권두언을 통해 ‘가정의 왕 되시는 부인의 정다운 친구’가 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우리의 가댕』 1호, 1~2쪽) 본 연구는 『아단문고 미공개자료 총서 2014』(소명출판, 2014)를 통해 공개된 『우리의 가댕』을 참고하였는데, 인용 시 “『우리의 가댕』, (호수), (인용 쪽수)”로 표기한다. 『우리의 가댕』 판본에 대한 논의로는 이혜진, 위의 논문, 174쪽 참조.

5) 공임순, 『우리의 가댕』, 강진호 외 16인, 『한국 근대문학 해제집 IV』, 국립중앙도서관, 2018.

6) 정영진, 「근대 초기 여성 대상 미디어의 현상모집 일고찰 - 『우리의 가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0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428쪽.

7)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 1910년대 최남선과 竹内録之助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8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러내는 지점이기에 문제적이다. 관련하여, 『우리의 가뉡』이 일선동화라는 목적하에 ‘젠더화된 지식’을 획득할 것을 권하였음을 지적한 이해진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⁸⁾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잡지의 구성 방식에서부터 독자 양성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세계’라는 표상 또한 이 안에서 적극적으로 호명되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순국문 잡지’로서 대중 매체의 역할을 각오하였던 『우리의 가뉡』을 살펴보는 일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가 발견된다. 이 잡지가 소개하는 ‘세계’에는 서구의 생활, 서구인의 시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맥락에서 본고가 특별히 살펴보고려는 대상은 『우리의 가뉡』 8호부터 등장하는 ‘백경애’라는 이름의 필자가 발표한 글이다.⁹⁾ 백경애는 『우리의 가뉡』 8호에 두 편의 글을 나란히 게재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드러낸다. 번역문 『조선인의 가뉡』과 현상공모 당선작 『조선녀자의 급선무가 무엇인고』라는 글이다. 즉 백경애는 공모 당선과 동시에 ‘기자’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번역문은 각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백경애가 『우리의 가뉡』의 필진으로 합류한 이후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며 연재한 글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가뉡』에 게재된 백경애의 번역문을 원 텍스트인 『Village Life in Korea』(J. Robert Moose, 1911)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1910년대 조선 여성들의 글읽기/쓰기에서 파생된 ‘강한 객관성(strong objectivity)’의 역사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고찰해보려는 시도이다.¹⁰⁾

8) 이해진, 앞의 논문, 195~198쪽.

9) 앞서 백경애의 글에 주목한 시도로는 정영진의 연구가 있는데, 그의 연구는 특히 『우리의 가뉡』에 연재된 소설 최찬식의 『해안』과의 연관성 속에서 백경애의 당선글을 독해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진, 위의 논문, 4장 참조) 정영진의 논문은 『우리의 가뉡』을 둘러싼 독자와 기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다만 백경애의 문제의식이 번역 작업과도 관련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본고는 그러한 지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10) 여기서 ‘강한 객관성’이란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이 제안한 개념으로, 하딩에 따르면, 억압 받는 자가 더 ‘강한 객관성’을 지닐 수도 있다. 즉 이 개념은 ‘객관성’의 성격을 재규정함으로써 ‘지식’의 범주를 재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샌드라 하딩, 조주현 옮김,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나남, 2009, 216~217쪽) 하딩의 후기 작업은 또 다르지만, 이 책에서의 하딩은 여성들의 삶에 근거한 연구에서 가장 강한 객관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주장을 통해 페미니스트 입장론적 인식론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여러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반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본고는 1910년대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촉발되었던 근대적 인식론의 특성을

무엇보다 1910년대는 여러 측면에서 ‘근대화’가 시도되던 시기, 일종의 ‘근대 전환기’¹¹⁾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당대 대중매체가 전달하고자 하였던 ‘근대적 지식’의 특성을 영한 번역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번역 행위의 역사성을 조명함으로써 『우리의 가뎡』이 발행된 1910년대 당시 한국 대중매체에 나타난 ‘세계’ 표상의 의의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우리의 가뎡』에 연재된 번역문의 의미를 원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가뎡』의 ‘현상공모’를 통해 등장한 번역가 배경애의 역할과 근대 전환기 여성 독자 대상 잡지에 나타난 독자 참여 공간의 복합적 성격을 논구할 것이다.

2. 한국 번역의 역사와 여성(독자)의 지식 수용

한국의 번역사를 살피는 데 있어, 상기할 요소 중 하나는 ‘번안’이라는 텍스트의 횡단 형태다. 이경림의 경우, 번안의 특징을 ‘현지화’를 통한 서술 방식에서 찾는다. 번역 작품의 역사적 의의를 번역하는 자의 ‘심상지리’와 관련하여 재해석하고자 한 것이다.¹²⁾ 특히 이 논문은 “한국 문학사에서 번안이 가장 문제시되는 시기는 1910년대”¹³⁾라고 말하고 있어, 1910년대 한국 사회에 근대적 지식이 형성되는 가운데 번안 및 번역의 역할을 중요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사유하게 한다. 번역문학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온 연구자는 박진영이다.¹⁴⁾ 박진영은 ‘번역의 주체’

살피는 과정에서 하딩의 주장이 시사점을 안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참고하려 한다.

11) 한국 근대사 전공자 소현숙의 경우, 한국에서 이혼법이 ‘근대적 전환’을 겪는 과정에 주목하며 근대적 법으로의 개혁이 “서구법의 수용과정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음을 지적하고, ‘일본-조선’의 구도뿐만 아니라 ‘식민지 근대’의 역사를 검토하는 작업의 문제점을 짚어낸 바 있다.(소현숙,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서 이혼법의 변화-한중일 비교』, 『역사와 담론』 第94輯, 호서사학회, 2020, 120~121쪽)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서구 담론의 수용과정에 주목하려는 본고에서는 ‘근대 전환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12) 이경림, 『『장한몽』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3) 이경림, 위의 논문, 6쪽.

에 주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¹⁵⁾ 최근에는 번역가의 ‘머리말’을 모은 자료집을 출판해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¹⁶⁾ 이는 근대 전환기 잡지에서 확인되는 번역가의 작업을 검토하려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안긴다.

물론 위의 논의들은 ‘번역 문학’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글의 연구 대상을 독해하는 데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는 『우리의 가뎡』이 번역문을 연재한 배경 중 하나가 ‘세계/서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려 한다. 『우리의 가뎡』은 지속적으로 ‘세계’를 호명했다. <국어 교육란>에서는 일본이 주로 등장했다면, ‘세계’를 다루는 글에서는 대개 미국과 구라과 등 서구의 문화가 소개되는 것이 특징이었다.¹⁷⁾ 이는 당시 다른 매체들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근대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성격의 번역물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고는 ‘번역’에 주목하여 『우리의 가뎡』이 전파하고자 하였던 근대적 지식의 일면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잡지는 번역물을 ‘세계/서구’의 가정상과 조선의 가정상을 비교해볼 수 있게 하는 디딤돌로 제공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뎡』의 번역은 ‘낯선 곳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놓인 위치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가뎡』은 여성들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었다.¹⁸⁾ 『우리의 가뎡』의 편집진은 창간호를 통해 “부인들”, “우리 조선 여자들”이 생활 상식을 익히거나 아이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통학식/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14) 대표 저서로는 박진영, 『번역과 변안의 시대』, 소명출판, 2011.

15) 박진영,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와 번역 주체」, 『현대문학의 연구』 5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6) 박진영, 『번역가의 머리말: 『천로역정』부터 『롤리타』까지』, 소명출판, 2022.

17) 『우리의 가뎡』은 창간호에서부터 ‘미국 뉴욕’과 같은 지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예를 들어, 『미국부인의 규측있게 일하는 것』(1호), 『미국 어떤 부인의 장한 일』(1호)을 시작으로, 『세계기담』(2호), 『서양남녀의 교제하는 모양』(7호), 제11호의 『구라과 황실의 미신』(11호) 등의 글이 있다. 이러한 글들은 이 잡지에 내재된 ‘서구/세계’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사를 보여준다.

18) 임센의 『인형의 집』이 한국 독서 역사에 자리잡은 것이 1920년대였음을 고려해 본다면, 백경애가 1914년에 이미 여성의 근대적 주체화라는 목적을 갖고 번역에 임했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만하다.

필요를 발간 동기로 밝힌다. 이에 『우리의 가뎡』이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국어 교육란〉은 문제적인 지점으로 꼽힌다. 주지하다시피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의미한다. 1호의 발간 동기를 밝히는 글에서도 ‘일본 부인’과 ‘조선 부인’이 원활하게 상호 소통하였던 사례를 조선 여성들이 ‘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의 가뎡』에는 식민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량’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이혜진이 지적하였듯 “1900년대에 발행된 『가뎡잡지』와 『너즈지남』이 여성 교육의 최종 목적을 ‘대한의 문명함과 부강함’에 둔 것과 대조”¹⁹⁾되는 지점이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의 가뎡』의 매체적 특성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잡지는 1900년대 여타의 여성잡지들과 다르게 ‘교육받은 여성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여성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면서도 그 범위를 ‘가정’으로 제한하기 위함이었다.²⁰⁾ 이처럼 『우리의 가뎡』은 ‘부인 독자’ 혹은 ‘여학생 독자’의 참여를 창간호부터 꾸준히 격려하되,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 맥락에서 이 잡지의 〈현상모집란〉과 〈독자투고란〉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현상모집란〉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여성이 근대 독자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²¹⁾로 평가받은 지면이다. 또한, 4호부터 이어진 〈독자투고란〉의 경우, 『부인구락부 엽서모집』(제4호~제10호), 『가을과 여러 사람의 가뎡』(제11호), 『우리가뎡의 실험』(제12호)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변형되면서 편집부가 지향한 ‘가정 개량’의 방향과 맞물려 여성 독자들이 ‘독자에서 필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그러나 이 지면들은 독자 참여 공간이라고 해서 그 안의 모든 내용물을 단일한 성격으로 규정지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가뎡』의 독자 참여는 꽤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19) 이혜진, 앞의 논문, 198쪽.

20) 이혜진, 위의 논문, 197쪽.

21) 정영진, 앞의 논문, 425쪽.

22) 이혜진, 위의 논문.

부인의 글 그림 모집

(대정三年정월초열흘안으로)

△글 (二十조식열다섯줄안으로)

△그림 (흔장)

△노리 (흔수)

본사에서는유명흔신부인녀학싱제씨의글과 그림과 노리를환영홀터이은데 그제
목은 가명으로홀 일, 글시는정조로쓸일, 시는데와일흠을자서이그록홀일, 보느기
는조선서울장곡천등신문사내우리의가명편찬부로홀일²³⁾

인용한 ‘모집’ 공고를 통해 『우리의 가명』이 독자 참여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번역’이라는 독자 참여 방식에 주목하려 한다. 특히 『우리의 가명』 현상모집 8회 당선자 중 ‘백경애’라는 이름의 필자의 작업을 살펴본다.

백경애는 『우리의 가명』 8호에 두 개의 글을 나란히 실게 된다. 하나는 현상공모 당선작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미국인 선교사가 출간한 영문서적의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물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백경애가 ‘기자’로 명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에 본고는 ‘독자에서 기자로’ 위치를 이동한 백경애가 연재한 번역문 형식의 글을 독자 참여 결과물의 일종으로 재독해 보고자 한다.

이때 백경애가 『조선의 촌락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옮긴 텍스트의 원제는 “Village Life in Korea”로, 1911년 미국에서 출간된 단행본이었다. 제이콥 로버트 무스(J. Robert Moose, 1864~1928)가 쓴 『Village Life in Korea』는 지난 2008년 『1900, 조선에 살다』²⁵⁾라는 제목으로 다시 번역된 상태다. 2008년 번역본 역자에 따르면, 제이콥 로버트 무스의 한국어 이름은 ‘무아킴’으로

23) 『우리의 가명』 제1호, 40쪽.

24) 정영진에 따르면, 『우리의 가명』의 현상모집 당선자 출신으로 ‘기자’가 된 필자는 백경애 외에도 4호 당선자인 덩현섭이 있다. 또한 현상모집에서 중복으로 당선된 이름들도 종종 확인된다.(정영진, 앞의 논문, 432쪽)

25) 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옮김,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

알려져 있으며, 2008년 번역본은 저자의 후손과 역자와의 인연을 통해 출간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이 책이 무스가 자주 인용한 헐버트(H. B. Hulbert)의 『조선의 역사(History of Korea)』, 기포드(D. L. Gifford)의 『조선의 풍속과 선교(Everyday Life in Korea)』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서울 중심의 서술 방식을 택한다면, 무스는 (백경애의 표현을 따르자면) “조선의 촌락생활”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또한 무스의 서술은 조선 말기 ‘시골’의 풍경을 기록하였다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과도 다르다. 여행자였던 비숍과는 달리, 무스는 대략 20년간 ‘조선의 시골’에서 생활하였던 거주자였다.²⁶⁾ 눈여겨볼 만한 또 하나의 특징은 1911년 원텍스트를 출간한 ‘Publishing House of the M. E. Church, South, Smith & Lamar, agents’가 1900~1910년대 미국에서 운영되었던 기독교 계열의 출판사였다는 사실이다. 해당 출판사의 출판 서적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 출판사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서적도 출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책이 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서구 기독교 계열의 출판사에서 기획한 결과물임을 암시한다. 특별히 살펴볼 부분은 백경애가 해당 책의 내용을 『우리의 가명』에 소개한 시점이다. 무스의 책이 출간된 것이 1911년, 백경애가 이를 번역한 것이 1914년이였다. 즉 백경애는 출간일로부터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번역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백경애의 번역 작업은 동시대성에 기반하여 이뤄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가명』 8호에 실린 『조선녀주의 급선무가 무엇인고』라는 주제의 ‘현상공모’ 결과에서, ‘개성군 미리흙(美理歙) 여학교 교사’인 백경애는 1등 당선자로 소개된다. 이후 백경애가 기자로서 발표한 첫 번째 글이 바로 번역문 『조선인의 가명』(제8호)이다. 당시 백경애가 쓴 후기를 참고하자면, 백경애는 ‘영문과 일문으로 발간되는 부인잡지’를 즐겨 읽던 독자로, 뛰어난 언어 실력을 갖춘 엘리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언어 기술을 바탕으로 백경

26) 위의 책, 6~7쪽.

에는 『우리의 가뎡』 ‘애독자’들에게 외국인인 ‘우리 가정생활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소개해 잡지 발간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밝힌다.²⁷⁾ 그러므로 백경애의 번역 작업은 『우리의 가뎡』의 현상모집이 일종의 ‘신진 작가 발굴 시스템’²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과연 백경애의 번역은 『우리의 가뎡』의 방향성과 잘 맞는 작업이었을까. 『우리의 가뎡』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이 잡지의 기획 배경으로 식민지 여성들의 ‘근대화’라는 목표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보고는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되, 해당 매체에서 확인되는 ‘근대식 지식/교육’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것은 백경애가 무스의 글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역가의 역량을 확인시켜주며,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서구의 논의를 나름의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이동시키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우리의 가뎡』에 나타난 백경애의 번역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3. 독자 참여로서의 ‘상황적 번역’과 ‘우리 조선 여자들’을 향한 사견(私見)

근대 초기 독자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매체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27) 백경애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가뎡』 발행을 맞이한 소감과 번역 작업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본 기자-일문이나 영문으로 발간한 각종 부인잡지를 뒤 흐는 때에 무한한 감상이 잇는 중 모든가뎡상 담론과 유익한 기사를 읽는 때 언제나 우리 방언으로도 이런고상한 기관이 발간될까 흥상 탄식하디니 근일 조선의 부인 잡지계의 선봉 『우리의 가뎡』을 잠심하야 읽다가 평일 『조선인 촌락생활』이란 영문 서책에서 [조선인 가뎡]이란 문대를 본 것이 문득 심감담이 『우리의 가뎡』을 익독하디는 너스 동포씩고하야 외인이 우리 가뎡생활의 상뎡을 관찰하대도 그려낸 것이 엇디흥을보이랴 하노니 본기자-이로써 본잡지를 익독하디는 적은 정성을 표하노라.”(『우리의 가뎡』 제8호, 3쪽) 즉 백경애의 번역은 ‘애독자로서의 작은 정성’을 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28) 이 주제는 『우리의 가뎡』이 행한 현상모집의 교육적 목적, 특히 학생과 교사들의 필자로서의 활동이 현상모집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다는 논의를 참고함으로써, 1910년대 매체에 나타난 작문 학습의 특성을 고찰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정영진, 앞의 논문, 431~432쪽 참조.

주장은 이미 수차 제기된 바 있다.²⁹⁾ 특히 이 시기 ‘새로운 주체’를 내세우며 출현한 여성잡지의 독자층은 모두 ‘여성’으로 표방되지만 그 안에 가정주부, 여학생 및 유학생, 여성 지식인과 문인, 재외국민, 노동자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닌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근대적 여성성에 대한 각 잡지의 입장을 대별해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³⁰⁾ 특히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가정잡지』(1906~), 『녀족지남』(1908~), 『자선부입회잡지』(1908~) 등 3종의 여성 대상 잡지가 발간되기 시작하는 등 계몽의 대상으로서 ‘여성 독자’를 적극적으로 호명하였던 현상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대중 매체들이 운동의 주체로 드러난 여성들을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포함시키고자 한 정황은 1908년 여성용 교과서 보급과 맞물려 고찰된다.³¹⁾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이 읽기의 주체(독자)에서 쓰기의 주체(작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이 근대 초기 매체의 독자 투고라고 보고, 여성문학사 서술의 첫 장을 여성들의 독자투고로 시작”하는 김양선의 최근 논문은 독자 참여 공간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에 큰 시사점을 안긴다.³²⁾

무엇보다 정영진이 논하였듯, 『우리의 가정』이 여성 대상 매체 최초로 ‘현상모집’을 실시하여, 잡지를 접한 여성들의 글쓰기를 독려함으로써 당대 여성들이 근대적 의미의 독자층으로 부상하게 하였다는 점³³⁾은 한국의 잡지사의 맥락에서도 강조할 만한 지점이다. 이 지면을 통해 발표된 몇몇 글이 여성들에게 가정 및 국가를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교하였던

29) 독서의 현대사(史)가 전문지식, 상식, 교양의 역사라면(정중현·천정환,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17쪽), 독서의 근대사(史)는 근대적 매체 등장에 따른 독서관습의 교체에 기인한다(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64~65쪽).

30) 이근화, 「근대적 글쓰기 공간으로서 여성 잡지: 근대 초기 여성 잡지의 실태와 양상 조사」, 『한국근대문학연구』 19(1), 한국근대문학회, 2018, 122쪽.

31) 정영진, 앞의 논문, 423쪽.

32) 김양선, 「한국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형성-근대 초기~식민지기-」, 『개념과 소통』 26,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0, 13쪽. 한편, 식민지기 『여성지우』와 같은 잡지에서도 ‘독자 투고란’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시도가 확인된다는 사실을 밝힌 논으로는 김윤진, 「『우리 오빠와 화로』 너머의 연대-『여성지우』와 엄홍섭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33) 정영진, 위의 논문.

것이 사실이나, 주체적 시각으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재해석하려는 시도 또한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³⁴⁾ 본고는 백경애의 번역 작업에서 후자의 특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 맥락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번역물의 구성 방식이다. 번역물은 매호 ‘역자 후기’와 비슷한 형태로 역자인 백경애의 소감을 먼저 배치한 후, 번역문을 소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번역물은 독자 참여의 한 사례로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자에서 기자로’ 활동하게 된 백경애가 『우리의 가뎡』에 발표한 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우리의 가뎡』에 게재된 백경애의 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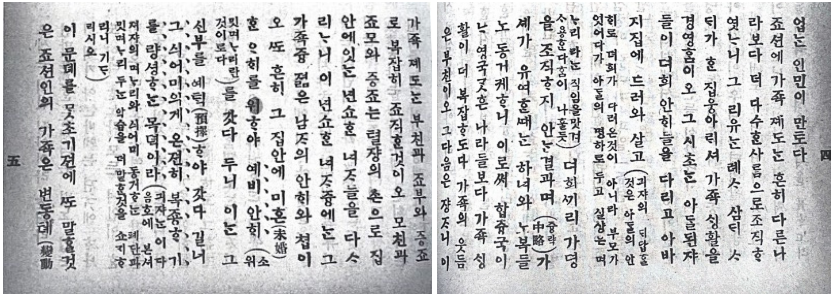
| 『우리의 가뎡』 게재 호수 | 글의 성격 | 제목 | 비고 |
|-------------------|----------|-----------------|---|
| 제8호 (1914.7) | 번역문 | 조선인의 가뎡 | 『Village Life in Korea』의 6장 ‘The Village Family’ 번역 |
| | 현상모집 당선작 | 조선여자의 급선무가 무엇인고 | 8호 ‘현상모집 수상작’ 모음에 백경애가 쓴 당선작이 포함되어 있다. |
| 제9호 (1914.8) | 번역문 | 조선의 소녀 | 『Village Life in Korea』의 10장 ‘The Village Girl’ |
| 제10호 (1914.9) | 번역문 | 조선의 녀인 | 『Village Life in Korea』의 11장 ‘The Village Woman’ |

[표 1]을 통해, 백경애가 『우리의 가뎡』에 실은 번역문이 총 3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텍스트인 『Village Life in Korea』의 분량이 단행본 한 권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백경애가 특별히 전달하고 싶은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였음을 생각하게 한다. 백경애는 단순히 텍스트를 옮기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뎡』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를 번역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일종의 ‘상황적 번역’³⁵⁾을 시도한 것이다.

34) 정영진, 위의 논문, 432~436쪽.

35) 여기서 말하는 ‘상황적 번역’이란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에서 따온 표현이다. 해러웨이(Haraway)는 에세이 『상황적 지식들(Situated Knowledges)』(1988)에서 주체성이 다차원(multidimensional)을 바탕으로 불완전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해러웨이가 중요하게 참고하는 하딩

먼저, 8호에 실린 『조선인의 가정』(이하 ‘조선인의 가정’)은 백경애가 ‘기자’로서 처음 게재한 글이자,³⁶⁾ 첫 번째 번역문이다. 이 글은 해당 호에서 가장 앞쪽에 놓임으로써, 그 담론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림1] 번역문 「조선인의 가정」 속에 다소 작은 크기의 글자로 쓰인 백경애의 사견(私見)

[표2] 원문과 백경애의 번역문 「조선인의 가정」 비교

| 원문 ³⁷⁾ | 백경애의 번역 ³⁸⁾ |
|--|---|
| <p>So it often happens that several families go to make up the household living under the same roof. Where the family can afford it, <u>there are servants and slaves who also enter into the family life</u>, which thus becomes much more complicated than it is in such countries as the Unites States and England.</p> | <p>조선에 가족 제도는 흔히 다른나라보다 더 다수 혼사함으로 조직하였더니 그 리유는 레스 삼디 스티가 혼 지붕아리서 가족 신향을 경영함 이오 그 시초는 아들된자들이 더희 안희들을 다리고 아버지집에 드러와 살고 (그자의 더담할 것은 아들의 안희로 더희가 다려온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엇어다가 아들의 명하로 두고 실상은 머느리라는 직임을 맞게 수용한다함이 나올 듯) 더희끼리 가명을 조직하지 안는 결과며 (중략) 가세가 유여흔제는 하녀와 노복들도 동거케 하니 이로써 합중국이는 영국국혼 나라들보다 가족 신향이 더 복잡호다다</p> |

(Harding)의 인식론은 물론 포스트 식민주의적 상상에 기댄 것으로, 주체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실재를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담고 있다.(Donna Haraway,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 14, No. 3, 1988)

36) 같은 호에 ‘현상광모’ 당선작이 함께 실려 있으나, 순서상 더 앞에 배치된 것은 번역문이었다.

37) 『Village Life in Korea』, 73쪽. 밑줄은 인용자.

38) 「조선인의 가정」, 『우리의 가정』 제8호, 4쪽. 밑줄은 인용자.

첫 번째 번역문인 『조선인의 가정』은 원서에서 6장에 해당하는 ‘THE VILLAGE FAMILY’의 내용 중 일부를 옮긴 것이다. 특히 백경애가 번역하는 자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글씨를 통해 개인적 의견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그림1] 참조). ‘민며느리(백경애의 번역문에서는 “밋며느리”)’ 제도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의 서술을 옮기면서도, 조선의 여성 번역자로서의 사견(私見)을 덧붙인 셈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경애는 ‘민며느리’에 대하여 자신만의 설명을 추가할 뿐 아니라, “그자는 이 다음호에 본서 저자의 며느리와 식어미 동거하는 폐단과 밋며느리 두는 악습을 더 말흔 것을 쇼기흐리니 기드리시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잡지에 실릴 자신의 글을 지속적으로 읽어볼 것을 권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2]에서 추가로 주목할 부분은 ‘동거하게 한다’는 표현이다. 2008년 출간된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이 ‘소유한다’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³⁹⁾ 이를 고려한다면, 1910년대에 백경애가 “하녀와 노복들노 동거케 하니”⁴⁰⁾라고 해당 구절을 옮긴 것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는 원문의 느낌을 살렸다는 점에서 꽤 적절한 의역이다. 나아가 ‘하녀와 노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관념이 당대 조선인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졌으리라 추측해보게 한다.

한편, 『조선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번역문이 실린 지면에 번역자인 백경애의 개인적 감상이 끝이어서 소개되고 있음을 눈여겨볼 만하다. 만약 번역문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원문의 내용을 ‘생략’하기보다는 ‘번역가의 말’을 줄이고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문은 원문을 다소 적게 소개하더라도 번역자의 ‘사견(私見)’을 함께 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기서 백경애는 『우리의 가명』의 독자일 이들에게 타인의 눈에 비친 ‘흠’을 직시함으로써 스스로 ‘수치’를 깨닫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것을 당부한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39) 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옮김,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 99쪽.

40) 『조선인의 가정』, 『우리의 가명』 제8호, 4쪽.

통해 사회적 규범을 바꿀 것을 요청하는 번역가의 말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⁴¹⁾ 그렇다면 사견(私見)을 활용한 ‘상황적 번역’이란 외부인의 시선(vision)을 필요에 따라 참고하여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나름의 근대적 인식론을 성립해보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번역문 「조선의 소녀」(이하 ‘조선의 소녀’)에서 이목을 끄는 부분은 “중략”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 및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일화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표3] 원문과 백경애의 번역문 「조선의 소녀」 비교

| 원문 ⁴²⁾ | 백경애의 번역 ⁴³⁾ |
|---|--|
| <p>Either before marriage or after, it is all the same; the girls are bound by the law of obedience to the mother-in-law from the day they enter her home. <u>They are slaves, literally grinding at the mill and doing all sorts of work about the house that would be done by slaves if the family were able to own them. I spoke of the grinding at the mill. It is here as it was in Palestine in the days of our Lord—the women are grinding at the mill. Often when I have seen two of them grinding I have been reminded of that saying of his: “Two women shall be grinding at the mill;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u> Is it any wonder that these young wives often find their burdens greater than they can bear and end the matter by taking their own lives?</p> | <p>혼인하기 전이나 후나 일반적으로 이 녀자들은 그 식어미집에 드러오노날 브터 그 식어미에게 순종하는 법률에 속박되고 곳 종이되어 락돌질이 며 그 외에 집안에 형제가 넉넉하야 종이 잇스면 홀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더라 (중략 中略) 이 년쇼흔 안희들이 각각 더희 집이 더희 힘에 지나서 더희 목숨을 브림으로 규명을 짓는 거시 엇지 이상흔 일이 되리오</p> |

위와 같이, 원문과 비교해보면 ‘중략’을 통해 꽤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백경애는 「조선의 소녀」 부분을 번역하는 과정에

41) 이 내용은 “외인이 우리 가정제도를 관찰한바가 스실이 아니라홀수업고 세상에 광포흔 그 칙을 보느자마다 우리 조선인을 흥보지 아니치 못 홀르 것을칭각하고 탄식홀을 마지아니했노라 그러나 사름은 타인이 내 흥쳐를 마르쳐줄쎄 슈치를 씩드를쑤너더러 들게맞고 곳치느자가 지혜잇는 자니 브라건대 「우리의가명」을 이독흔는 동포는 붓그러워만흔고 그만두느자가 되지말고 능히 붓그러워 홀줄도 알고 능히 곳칠줄도 아느자가되어 힘써 분발」할 것을 주장하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의 가정』, 『우리의 가명』 제8호, 7쪽)

42) 『Village Life in Korea』, 111쪽. 밑줄은 인용자.

43) 「조선의 소녀」, 『우리의 가명』 제9호, 13~14쪽. 밑줄은 인용자.

서 성경의 일화가 조선의 여성 독자들에게는 그리 유용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백경애가 『조선의 소녀』를 번역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역자 후기에서 찾을 수 있다. 번역문이 끝나자마자, 백경애는 “오호라 이거시 수십만 동포 청년 녀즈의 심할 상티인가”⁴⁴⁾하고 한탄한다. 이어 이러한 “악흔 풍속과 습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녀즈교육이 업슴”의 문제를 꼽는다.⁴⁵⁾ 결국 백경애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녀즈교육을 장려”⁴⁶⁾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선의 소녀들’의 상황에 관해 외국인의 시각에서 목격한 바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조선의 소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백경애의 주목은 여성의 의무처럼 여겨져온 ‘가정에 대한 복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예를 들자면, 이 번역문은 ‘민머느리 제도’와 같은 문화가 어떻게 대물림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는데,⁴⁷⁾ 이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 구축된 억압의 고리를 가시화한다.

한편, 세 번째 번역문 『조선의 녀인』에서는, 본문을 공개하기에 앞서 ‘기자’의 입장을 밝히는 부분의 분량이 유난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역자인 백경애의 고민과 사유가 잘 드러나는 지점이라 판단하여, 다소 길지만 이를 전문 인용해보기로 한다.

이아래 괴스(記事)는 『조선인 혼락 심할』이란 영어책 데+—장 『조선의 녀인』이란 데목하에 론설이니 첨위 독자는 넘기전에 먼저 그 외국인인 조선 부녀의 심할 상티를 아름답다 칭션호엿슬넌지 불미(不美)하다 흥보앗슬넌지 쏘는 가련하다

44) 『조선의 소녀』, 『우리의 가명』 제9호, 15쪽.

45) 위의 글, 15쪽.

46) 위의 글, 16쪽.

47) 번역문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후에 나도 아들 둔 즐거운 어머니가 될터이니 그리면 오리지 안아 머느리가 싱길터이라 그새는 내가 세상에 난듯호겟고나 그리면 내 이전 밧을 다 청장(淸帳)호되 이제 밧는터로 꼭다 갑고 변리시지 넉넉히 밧여서 갑호리래!”와 같이, 윌텍스트의 저자가 조선에서 들었다는 말을 옮기는 부분이다. (『조선의 소녀』, 『우리의 가명』 제9호, 15쪽)

평론하였을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볼지라도 본기자 귀한 시간을 써가며 늬이 나를 흥본 이야기를 주지흔자 보논외에 번역하야 첨위 녀즈계 동포의게 쇼기흠을 보고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해논이도 잇습넌지 모르나 오직 기자의 심중에 일편 열성은 즈과는부지(自過不知)란고어(古語)와 꺾치 아직도 우리 조선 수빅만부녀계에 즈기 흥되는 것을 모로논이가 만코 여간 아논이라도 생각해 동반구 구석 적은 반도 닉에 일을 엇지 세상이 다 알수잇스며 더욱 규중(閩中)녀즈계의 상황이야 엇지 호리인들 알니오 흥논이가 왕왕 잇는지라 본기자—이런생각을 가지신 부녀 동포 의게 말씀 할것은 세상이 몹은거울 꺾치 빗최고 서로 문을 열어놉코 사는 이십세기 이세는 임의 우리 조선 부녀사회의 참담흔 상황과 텃텃흔 구습상티가 온세상에 넓니 쇼기되여 우리조선 부녀사회 형편은 조선사람이 조선 말노 기록흔것은 일절 업스되 외국인이 조국(自國)방언으로 기록흔 책은 만토다 기자—그중에 얼마를 넓으며 탄식하다가 아직도 구습의 밤중에서 긴 꿈을 꾸논이의게 늬이 내흥보고 잇다는 말이나 듯게 하코 자든 잠을 썬여 니러난이의게 활발히 운동하자 직촉하논 생각으로 이에 그 대강을 역등(驛燈)하노니 우리 조선 녀즈사회도 속히 경성하코 활동하야 늬의게 치쇼도면 하코 나의 밧을 행복을 누리며 후세력스상 자랑할만한 녀영웅이 만히 니러나게됨을 응축하노라 그 기사에 하였스되⁴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경애는 “늬이 나를 흥본 이야기”를 번역하는 것이 과연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백경애가 이 글을 옮기는 이유는 “우리 조선 녀즈사회”의 구성원들이 제3자의 눈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백경애는 번역을 통해 ‘여자계 동포들’에게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앞서 8호에 실렸던 『조선인의 가정』의 번역 후기에서 확인되었던 ‘부끄러움’의 감정과도, 또한 백경애가 ‘현상공모’ 당선작에서 주창하였던 ‘도덕심’⁴⁹⁾이라는 감정과도 관련될 수 있다. 식민지 조선 여성의 위치에서 쓴 ‘번역+사견(私見)’의 글쓰기 양식은 ‘객관성(objectivity)’의 기

48) 『우리의 가정』 제10호, 2~3쪽. 강조는 인용자.

49) 당선작에서 백경애는 “조선녀즈의 급선무는 도덕심”이라고 주장하였다.(『우리의 가정』 8호, 31쪽)

준 자체를 고민하게 한다.

한국의 근대화 역사 속에서 근대적 주체들, 특히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과 관련하여, 조선의 공간은 양분화되어 상상되는 경향이 있다. 전근대적 공간으로서의 농촌과 근대적 교육장으로서의 여학교의 구도로 구분하는 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뎡』에 연재되었던 번역문은 그러한 이분법적 구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번역자였던 백경애는 매호 번역에 앞서 자신의 사견을 첨언하거나, 번역문 사이사이에 개입하여 ‘우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근대적 지식 체계의 수혜를 입은 조선의 여성으로서 언어라는 도구를 획득한 것에 대한 책임이 번역을 통해 새어 나오고 있던 것이다.

4. 나가며

이 글은 1910년대 여성 독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당대 여성들의 ‘학식/지식’ 향상을 도모하였던 잡지 『우리의 가뎡』에 나타난 근대적 인식론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의 가뎡』에 나타난 ‘외국인 시각’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 편집진이 전하고자 했던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었는가를 밝혀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내한 선교사 무야콥이 미국에서 출간한 『Village Life in Korea』(J. Robert Moose, 1911)와 ‘독자 출신 기자’였던 백경애가 1914년 연재한 번역문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번역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근대 전환기 여성 독자 대상 잡지에서 확인되는 독자 참여 공간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려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백경애가 원서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본고는 조선의 여성 번역가가 미국인 선교사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담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자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백경애는 매번 번역문과 ‘역자 후기’를 나란히 서술하였다. 여기에는 비록 “남이 나를 흥본 이야기”를 옮기는 입장이지만 ‘여자계 동포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뿐만 아

나라, 번역한 문장들 중간에는 역자의 사견(私見)이 간혹 배치되었는데, 여기에 지속적인 독서에 대한 요청과 조선인으로서의 “대답”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한계점은 백경애라는 여성 번역가의 작업에 주목하면서도 『우리의 가뎡』에서 소개한 이력 외에 다른 정보를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단히라도 밝혀두자면, 『우리의 가뎡』 9호 첫머리에 실린 사진으로 추정컨대 백경애는 개성 지역에서 유명했던 ‘시각 장애인 전도사’ 백사겸(白士兼, 1860~1940)의 아들이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근대적 음악 관련 활동을 펼쳤던 연희전문학교(‘연전’)의 영문과 교수 백남석(白南奭, 1894~?)과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러한 생애사 정보는 어쩌면 한국 최초의 여성 번역가일 수 있는 백경애의 글쓰기 특성을 살피는 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다른 사료를 검토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므로 후속 작업을 기약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근대 전환기 한국의 여성 번역가가 서구 담론을 번역해 옮기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여성 지식 형성사의 계보를 그려보았다. 이 과정은 ‘근대화’의 흐름에 놓인 조선이라는 공간이 당시의 여성들에게 ‘진근대적 농촌/근대적 여학교’와 같은 이분법적 공간으로 간단히 규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한 여성 번역가가 자신이 가진 ‘언어’라는 기술을 통해 외부의 시선과 경합하고 얽히며 근대적 지식을 전유하고 있었다.

50) 백남석의 삶에 대한 정보로는 정운형, 『연희전문학교의 음악교육-한국인 교수와 연전음반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99집,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2020, 292~296쪽 참조. 백남석이 1923년 윤경옥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한 사실은 당시의 기사를 통해 확인되지만, 1910년대 개성 지역에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백남석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개성 지역 출신이며, 기독교와 관계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백경애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이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백남석이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관련 내용은 『신랑신부』, 『동아일보』, 1923.10.29.)

■ 참고문헌

- 『아단문고 미공개자료 총서 2014』, 소명출판, 2014.
- 『우리의 가뉘』 1~12, 1913.12.~1914.11.
- 『동아일보』
- J. Robert Moose, *Village Life in Korea*, Publishing House of the M. E. Church, South, Smith & Lamar, agents, 1911.
- 박진영, 『번역과 번역의 시대』, 소명출판, 2011.
- _____, 『번역가의 머리말: 『천로역정』부터 『롤리타』까지』, 소명출판, 2022.
- 샌드라 하딩, 조주현 옮김,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나남, 2009.
- 정중현·천정환,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 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옮김,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
- 천정환, 『근대의 책임기』, 푸른역사, 2003.
- Donna Haraway,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 14, No. 3, 1988.
- 공임순, 『우리의 가뉘』, 강진호 외 16인, 『한국 근대문학 해제집 IV』, 국립중앙도서관, 2018.
- 김양선, 『한국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형성 - 근대 초기~식민지기 -』, 『개념과 소통』 26, 한림대학교 한림과 학원, 2020.
- 김윤진, 『"우리 오빠와 화로" 너머의 연대 - 『여성지우』와 엄홍섭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 박진영,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와 번역 주체』, 『현대문학의 연구』 5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 소현숙,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서 이혼법의 변화 - 한중일 비교』, 『역사와 담론』 第94輯, 호서사학회, 2020.
- 이경림, 『"장한몽"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근화, 『근대적 글쓰기 공간으로서 여성 잡지: 근대 초기 여성 잡지의 실태와 양상 조사』, 『한국근대문학연구』 19(1), 한국근대문학회, 2018.
-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II) - 1898~1910년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 이혜진, 『일본인 발행 여성잡지와 '가정 개량'의 방향 - 『우리의 가뉘』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5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정영진, 『근대 초기 여성 대상 미디어의 현상모집 일고찰 - 『우리의 가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0 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 정운형, 『연희전문학교의 음악교육 - 한국인 교수와 연전음반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99집,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희신학대학원), 2020.
-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 1910년대 최남선과 竹内録之助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8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 과정 - 1908년 『대한매일신보』, 『여자지남』, 『자선부인회잡지』를 중심으로』, 『韓國古典研究』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The Appearance of Female Transl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Modern Epistemology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Kim Minji*

This study examines that Western discussions were not simply conveyed to Koreans by highlighting the translations published in the magazine “Uriui Kadyung”; which spread modern knowledge to female Korean readers in the 1910s. The phenomenon of ‘readers becoming writers’ identified in the magazine was also importantly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Referring to the previous discuss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translation work of Baek Kyung-ae, who was a reader-turned-writer. Baek started her career as a writer by publishing two articles in the magazine “Uriui Kadyung” No. 8 in 1914. One was the winning work of the “Writing Contest,” and the other was a translation of parts of the books published by J. Robert Moose, an American author who was a missionary in Korea, in 1911. The translation had been serialized in three volumes in the magazine “Uriui Kadyung.” Especially, this article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translation was not a full text translation, and was published with an editorial such as “translator review”. As a result, I concluded that Baek’s translation work was adding the situation of colonial Korea instead of conveying the Western view as it was. I named this translation method as “situational translation” by borrowing Haraway’s discussion of “situated knowledge”. And I claimed that colonial Korea, as a living space

*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Korean women, should not be defined in a dichotomous way, such as ‘pre-modern rural area / modern girl’s school’.

Key words: translator, female reader, female writer, a women magazine,
Village life in Korea(J Robert Moose)